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S Y M P O S I U M 2 0 1 2

전문무용수의 직업화는 가능한가?

이 책자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2012년
발간자료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및
원저작자의 의도와 다른 복제, 편집,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2012 by DCDCENTER. All Rights Reserved.

■ 일시 : 2012년 6월 27일(수) PM2:00~6: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 주최 : 재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순서

사회: 장승헌 (공연기획자, 춘천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

- 인사말 박인자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 축 사 방선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장

- 발제 I **전문무용수 직업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 과제**

발제자 : 장광열 | 한국 춤정책연구소장, 춤비평가

- 발제 II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제자 : 장인주 | 무용 이론가

- 발제 III **민간 예술단체의 살아남기와 고민**

발제자 : 김인희 |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 지정토론 양효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정재왈 | 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박호빈 | 댄스시어터 까두 예술감독

■ 인사말 ■



현재 한국의 예술인 대부분은 예술분야 이외의 직업을 부업으로 겸직을 하여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선진국에서는 무용예술인이 가진 창작활동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여러 장치들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민간무용단체의 영세성 등으로 창작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용예술의 직업으로서의 인식 확장과 무용수의 권익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전문무용수의 직업화는 가능한가?”라는 무용계에 필요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들의 상해재활, 공연활동, 직업전환 등을 돕는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2,200여명의 무용수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재활 지원, 무용단과 무용수를 연결하여 공연을 돕는 댄서스잡마켓 사업, 무용수가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는 직업전환 사업을 통해 무용수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심포지엄 발제를 맡아주신 장광열님, 장인주님, 김인희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양효석님, 정재왈님, 박호빈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직업인으로서의 무용수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도 무용수의 직업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7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

| 발제 I |

 **전문무용수 직업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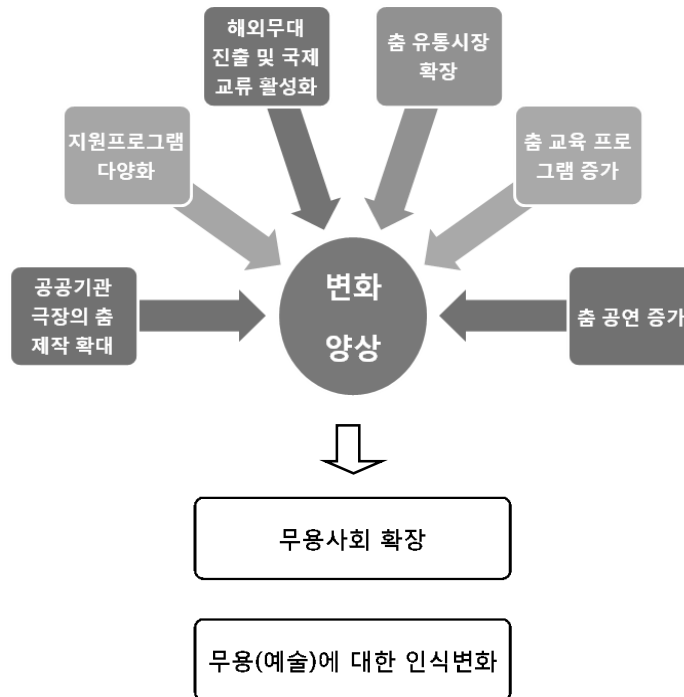
장광열 (한국춤정책연구소장, 춤비평가)



전문무용수 직업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 과제

장광열 (한국춤정책연구소장, 춤비평가)

I. 최근 한국 춤계의 변화 양상



II. 통계로 보는 한국 춤계 현황

1. 2011 공연예술 실태조사 주요 지표

- 2010년 한국 공연시장 규모는 약 5,493억원으로 추정.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매출액 기준)
- 업체수는 3,034개. 이 중 공연시설은 820개 공연단체는 2,214개로 파악됨. 종사자수는 56,798명으로 공연시설 종사자가 9,623명, 공연단체 종사자가 47,175명으로 추정.
- 매출액은 약 5,493억원으로 공연시설 매출액은 약 3,274억원, 공연단체 매출액은 약 2,219억원으로 추정.
- 공연시설(업체수)는 기타 민간시설수가 전체의 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문예회관 시설수가 23.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종사자수는 문예회관 종사자


수가 전체의 39.4%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민간시설 종사자가 27.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음. 매출액은 기타 민간시설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45.5%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문예회관 매출액이 32.0%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음.

- 공연단체의 경우 특성별로 크게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등 5개 장르단체 그룹으로 나눔.
- 무용 공연 단체는 395개로 5개 장르 중 17.8% 차지. 양악단체와 연극단체가 각각 전체의 31.0%, 28.3%로 타 장르 단체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 무용 분야 종사자 수는 6,759명으로 5개 장르 가운데 14.3% 차지. 양악단체가 전체의 40.8%로 높게 나타남.
- 무용 분야 매출액은 419억 7천9백만원으로 5개 장르 중 18.9% 차지. 양악 단체가 전체의 5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극단체도 2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체 공연시장규모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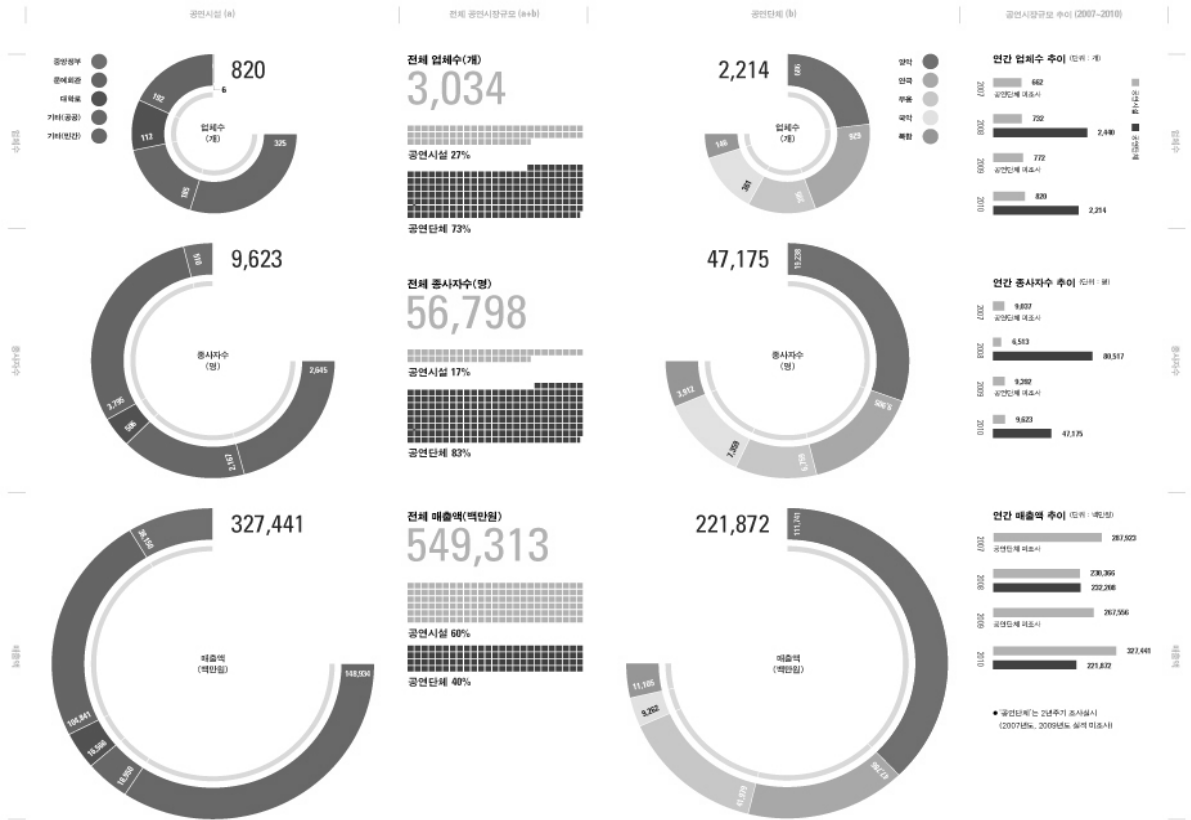
구분	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백만원)
전체	3,034	56,798	549,313
공연시설	820	9,623	327,441
공연단체	2,214	47,175	221,872

공연시설 (a)

업체수	구분		
	업체수(개)	비율(%)	
	전체	820	100.0%
	중앙정부	6	0.7%
	문예회관	192	23.4%
	대학로	112	13.7%
	기타(공공)	185	22.6%
	기타(민간)	325	39.6%
종사자수	구분		
	종사자수(명)	비율(%)	
	전체	9,623	100.0%
	중앙정부	510	5.3%
	문예회관	3,795	39.4%
	대학로	506	5.3%
기타(공공)	2,167	22.5%	
기타(민간)	2,645	27.5%	
매출액	구분		
	매출액(백만원)	비율(%)	
	전체	327,441	100.0%
	중앙정부	38,150	11.7%
	문예회관	104,841	32.0%
	대학로	16,566	5.1%
기타(공공)	18,950	5.8%	
기타(민간)	148,934	45.5%	

공연단체 (b)

업체수	구분		
	업체수(개)	비율(%)	
	전체	2,214	100.0%
	양악	686	31.0%
	연극	626	28.3%
	무용	395	17.8%
	국악	361	16.3%
	복합	146	6.6%
종사자수	구분		
	종사자수(명)	비율(%)	
	전체	47,175	100.0%
	양악	19,238	40.8%
	연극	9,905	21.0%
	무용	6,759	14.3%
국악	7,359	15.6%	
복합	3,912	8.3%	
매출액	구분		
	매출액(백만원)	비율(%)	
	전체	221,872	100.0%
	양악	111,741	50.4%
	연극	47,786	21.5%
	무용	41,979	18.9%
국악	9,262	4.2%	
복합	11,10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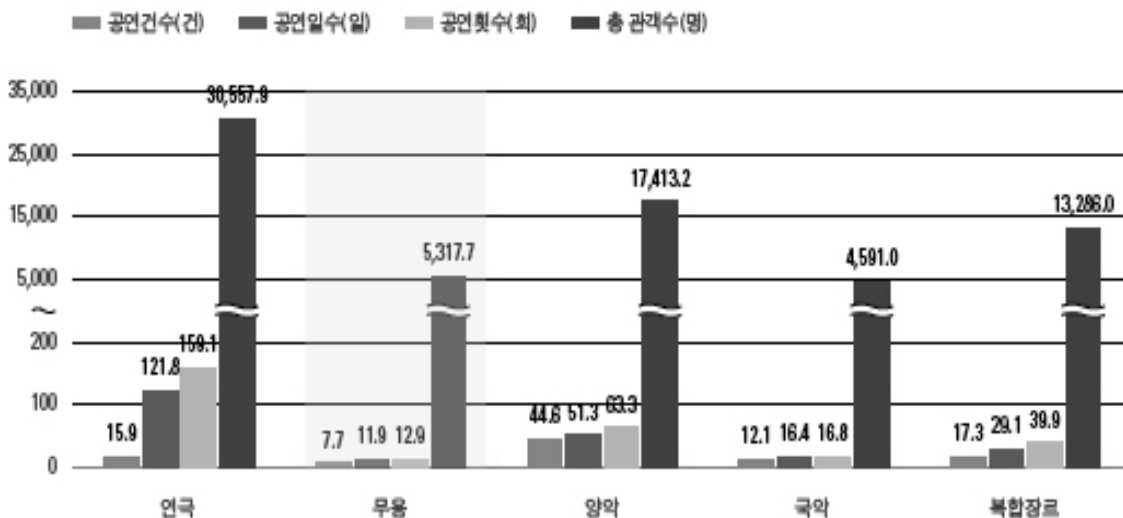
2. 춤 공연 현황

2010년 기준 1,600건 2,513회 공연에 약 1백만명(988,998명) 관객 관람

표 4-17 | 공연프로그램(장르별) 공연실적(기획+대관)

구분							전체		
	공연건수(건)		공연일수(일)		공연횟수(회)		관객수(명)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대장르	연극	7,893	15.9	57,397	121.8	74,022	159.1	14,431,052	30,557.9
	무용	1,600	7.7	2,356	11.9	2,513	12.9	988,998	5,317.7
	양악	13,566	44.6	14,788	51.3	18,207	63.3	4,918,544	17,413.2
	국악	2,610	12.1	3,459	16.4	3,531	16.8	939,531	4,591.0
	복합장르	3,824	17.3	5,914	29.1	7,820	39.9	2,488,392	13,286.0
세부장르	연극 연극	5,002	12.0	39,083	98.1	48,536	123.9	6,782,098	17,117.3
	뮤지컬	2,892	10.7	18,314	76.2	25,486	105.9	7,648,954	30,560.6
	무용 무용	1,377	7.5	1,992	11.8	2,076	12.9	751,857	4,913.4
	발레	223	3.5	404	6.3	437	6.8	237,141	3,802.6
	양악 양악	13,203	45.7	14,162	51.9	17,565	64.0	4,542,933	16,866.6
	오페라	363	4.5	616	7.6	642	8.3	375,611	5,081.0
	국악	2,610	12.1	3,459	16.4	3,531	16.8	939,531	4,591.0
	복합장르	3,824	17.3	5,914	29.1	7,820	39.9	2,488,392	13,286.0

그림 4-20 | 장르별 공연실적(평균)



3. 층 단체 현황

총 395개 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95개 단체가 서울에 있으며 경기 56개, 부산38개 순으로 많음

구분	단체 수 (개)	주요활동장르									
		복합		국악		무용		양악		연극	
		단체 수(개)	비율(%)	단체 수(개)	비율(%)	단체 수(개)	비율(%)	단체 수(개)	비율(%)	단체 수(개)	비율(%)
전체	2,214	146	6.6	361	16.3	395	17.8	686	31.0	626	28.3
지역1											
서울	985	79	8.0	118	12.0	195	19.8	256	26.0	337	34.2
부산	156	8	5.1	22	14.1	38	24.4	48	30.8	40	25.6
대구	80	4	5.0	18	22.5	12	15.0	30	37.5	16	20.0
인천	66	1	1.5	11	16.7	11	16.7	25	37.9	18	27.3
광주	67	5	7.5	13	19.4	6	9.0	29	43.3	14	20.9
대전	65	-	-	11	16.9	13	20.0	27	41.5	14	21.5
울산	33	-	-	8	24.2	7	21.2	11	33.3	7	21.2
경기	307	15	4.9	42	13.7	56	18.2	114	37.1	80	26.1
강원	82	4	4.9	11	13.4	11	13.4	27	32.9	29	35.4
충북	45	1	2.2	17	37.8	5	11.1	11	24.4	11	24.4
충남	39	3	7.7	9	23.1	5	12.8	13	33.3	9	23.1
전북	81	11	13.6	23	28.4	9	11.1	27	33.3	11	13.6
전남	39	3	7.7	19	48.7	2	5.1	9	23.1	6	15.4
경북	58	6	10.3	15	25.9	2	3.4	20	34.5	15	25.9
경남	81	5	6.2	17	21.0	17	21.0	28	34.6	14	17.3
제주	24	1	4.2	6	25.0	2	8.3	11	45.8	4	16.7
모름/무응답	6	-	-	1	16.7	4	66.7	-	-	1	16.7
지역2											
특별/광역시	1,452	97	6.7	201	13.8	282	19.4	426	29.3	446	30.7
광역시도	756	49	3.4	159	21.0	109	7.5	260	17.9	179	12.3
모름/무응답	6	-	-	1	16.7	4	66.7	-	-	1	16.7
지역3											
수도권	1,358	95	7.0	171	12.6	262	19.3	395	29.1	435	32.0
비수도권	850	51	6.0	189	22.2	129	15.2	291	34.2	190	22.4
모름/무응답	6	-	-	1	16.7	4	66.7	-	-	1	16.7
설립											
국·공립단체	291	17	5.8	60	20.6	19	6.5	179	61.5	16	5.5
주체1											
민간단체	1,923	129	6.7	301	15.7	376	19.6	507	26.4	610	31.7
설립											
국립전속단체	63	2	13.3	5	33.3	4	26.7	3	20.0	1	6.7
주체2											
국립전속단체(광역)	213	4	6.3	17	27.0	8	12.7	30	47.6	4	6.3
국립전속단체(기초)	15	11	5.2	38	17.8	7	3.3	146	68.5	11	5.2
민간단체	1,923	129	6.7	301	15.7	376	19.6	507	26.4	610	31.7

4. 국공립무용단체 현황

전국의 국공립 예술단체 수는 289개이며 이 중 무용단체는 23개로 극히 적음.
 23개 단체에 소속된 단원 수는 총 824명으로 집계됨. 이중 댄서는 754명. 823회 공연에 78만 명이 조금 넘는 관객 동원.
 23개 국공립 예술단체의 예산은 331억 7천 5백여만 원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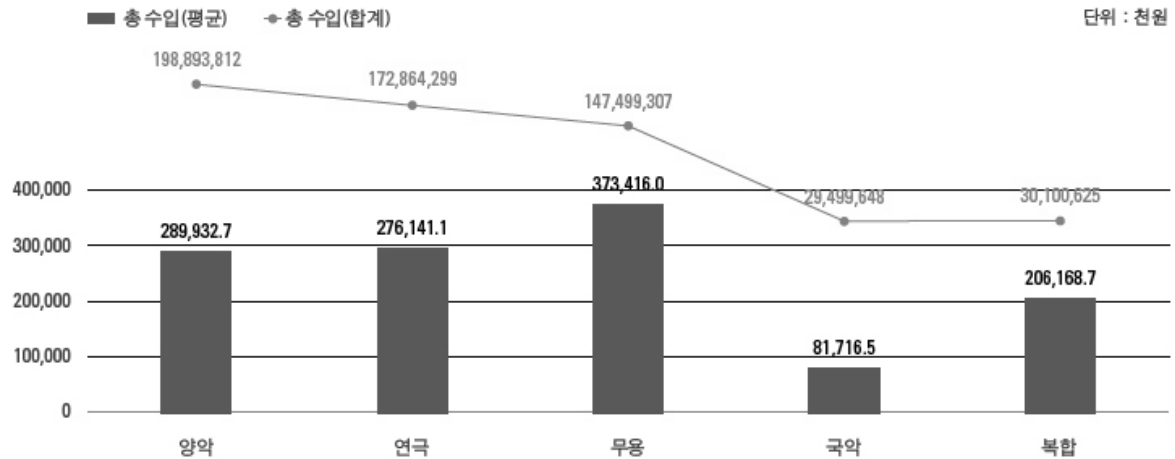
단체수	종사자수	유급단원수	공연횟수	관객수
23개	824명 (무용수 754명)	554명 (76%)	823회 (평균 36회)	781,335명

5. 춤 공연실적(기획공연+기타공연)

구분	전체 (평균)					기획공연 (평균)					행사참가 및 초청공연 (평균)					
	공연 건수 (건)	공연 일수 (일)	공연 횟수 (회)	총관 객수 (명)	유료관 객비율 (%)	공연 건수 (건)	공연 일수 (일)	공연 횟수 (회)	총관 객수 (명)	유료관 객비율 (%)	공연 건수 (건)	공연 일수 (일)	공연 횟수 (회)	총관 객수 (명)	유료관 객비율 (%)	
전체	4.9	33.8	40.7	9,487.3	61.1	3.4	34.6	42.6	9,659.9	61.0	4.3	11.0	12.0	5,279.8	60.2	
주요 활동 장르	양악	5.2	17.3	18.0	7,532.1	57.2	3.2	13.8	14.4	6,814.7	56.5	4.1	8.2	8.4	2,820.1	64.7
	연극	5.7	83.4	105.9	11,751.9	63.5	3.4	79.0	101.5	11,832.4	62.8	4.7	15.2	17.0	1,947.3	72.6
	무용	5.8	28.3	29.2	14,097.0	67.1	3.1	20.9	21.5	9,254.5	69.9	3.5	9.6	10.9	9,443.9	40.2
	국악	6.3	18.8	20.4	8,409.8	54.8	4.1	14.2	15.8	5,458.9	53.8	4.6	10.7	11.1	7,484.1	72.2
	복합	6.2	41.6	59.9	24,910.1	63.2	3.3	39.0	58.9	26,434.1	62.3	5.3	13.4	15.5	5,514.5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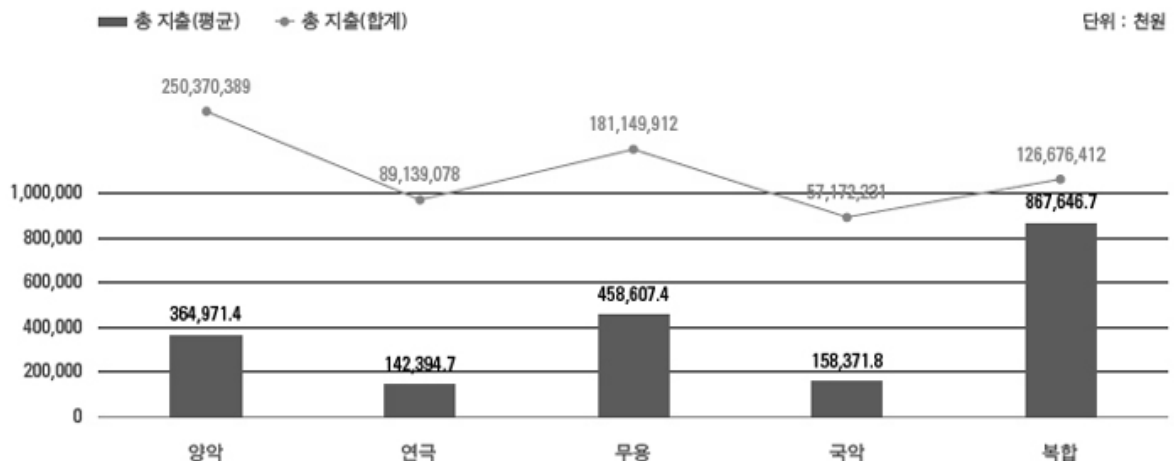
6. 무용예술 연간 수입 현황

무용 연간 총 수입 1,475억원. 평균 총수입 3억7천만원으로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7. 무용예술 연간 지출 현황

무용 연간 총지출 약 1,812억원, 총지출 4억5천8백만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음



주요활동 장르	양악	연극	무용	국악	복합
			250,370,389		364,971.4
		89,139,078			142,394.7
			181,149,912		458,607.4
				57,172,231	158,371.8
					126,676,412
					867,646.7

8. 춤 공연 단체 인력 현황

무용 분야 인력 약 7천 여명 중 직업무용단원은 3,615명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

구분	전체 (명)	단원 수						지원인력 수					
		소계 (명)		상근단원		비상근단원		소계 (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명)	구성비 (%)	합계 (명)	구성비 (%)	합계 (명)	구성비 (%)	합계 (명)	구성비 (%)	합계 (명)	구성비 (%)	합계 (명)	구성비 (%)
전체	47,175	35,122	13,132	37.4	21,990	62.6	12,053	7,651	63.5	4,402	36.5		
주요활동 장르	양악	19,238	16,104	6,434	40.0	9,670	60.0	3,135	1,862	59.4	1,272	40.6	
	연극	9,905	6,548	1,524	23.3	5,024	76.7	3,357	1,850	55.1	1,507	44.9	
	무용	6,759	3,615	1,883	52.1	1,732	47.9	3,144	2,313	73.6	831	26.4	
	국악	7,359	5,883	2,468	41.9	3,415	58.1	1,476	987	66.9	489	33.1	
	복합	3,912	2,971	823	27.7	2,148	72.3	941	638	67.8	303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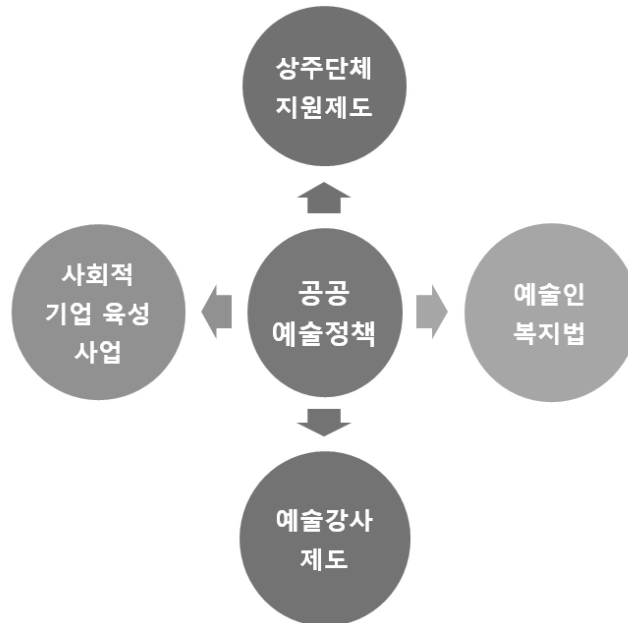
9. 4대 보험 가입현황

395개 단체 중 4대 보험이 하나라도 적용되는 단체의 수는 평균 142개 단체로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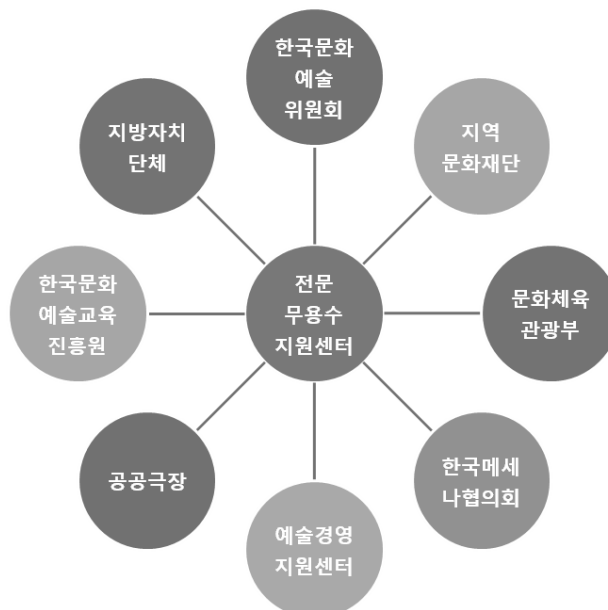
구분	4대보험 가입여부 (중복응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사항없음		모름/무응답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단체 수 (개)	비율 (%)	
전체	805	36.4	877	39.6	806	36.4	764	34.5	1262	57.0	66	3.0	
지역1	613	40.0	651	42.5	621	40.5	587	38.3	811	52.9	63	4.1	
	광역도	193	28.2	226	33.1	186	27.2	177	26.0	451	66.1	3	0.5
지역2	617	40.9	655	43.4	627	41.5	591	39.2	796	52.7	55	3.7	
	비수도권	188	26.8	222	31.5	179	25.5	173	24.6	466	66.2	11	1.6
설립 주체1	185	42.7	231	53.3	212	48.9	170	39.3	200	46.2	-	-	
	민간단체	621	34.9	646	36.3	594	33.4	594	33.4	1061	59.6	66	3.7
설립 주체2	55	61.3	91	100.0	89	98.1	55	61.3	-	-	-	-	
	공립전속 단체(광역)	38	69.5	42	76.5	36	65.7	33	61.2	13	23.5	-	-
	공립전속 단체(기초)	92	31.8	99	34.3	88	30.4	82	28.2	188	65.0	-	-
	민간단체	621	34.9	646	36.3	594	33.4	594	33.4	1061	59.6	66	3.7
주요 활동 장르	양악	255	37.1	261	38.0	239	34.9	235	34.2	388	56.5	33	4.8
	연극	252	40.3	280	44.7	247	39.4	246	39.4	330	52.8	13	2.1
	무용	134	34.0	156	39.5	149	37.6	127	32.0	239	60.5	1	0.9
	국악	121	33.5	139	38.4	130	36.1	118	32.5	219	60.7	3	0.1
	복합	44	29.8	41	28.3	41	28.3	39	26.9	85	58.5	17	11.7

Ⅲ. 전문 무용수 직업 창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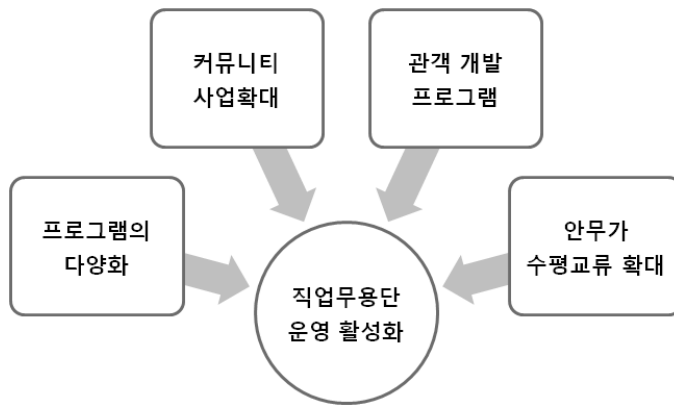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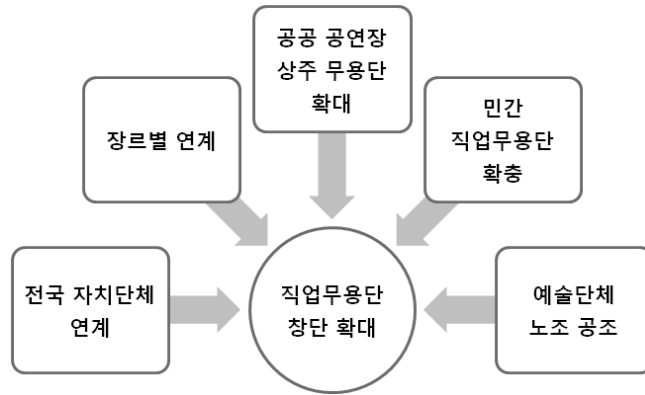
1. 공공 예술정책과의 연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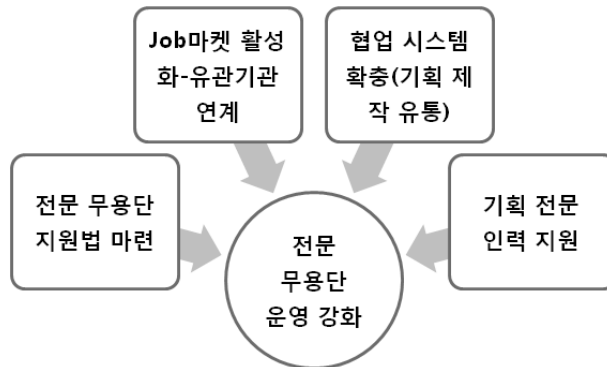
2. 예술정책 수행기관과의 연계확대



3. 직업 무용단 창단 확대 및 운영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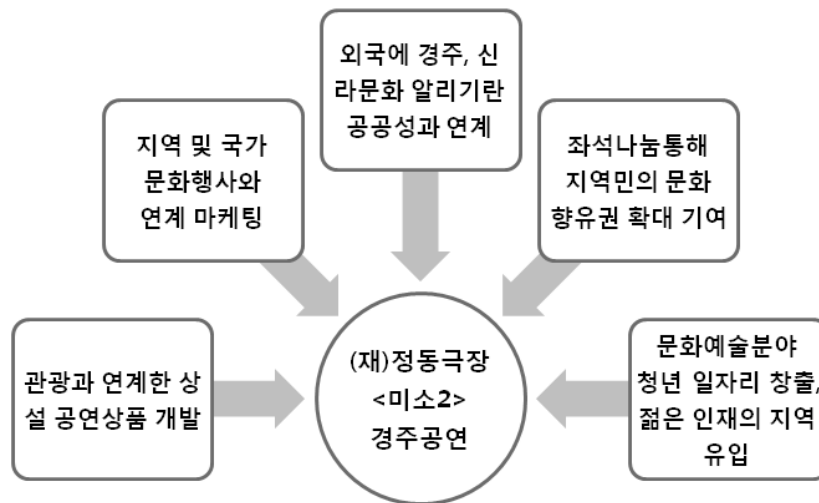
4. 전문 무용단 운영 강화



- 전문 무용단 지원 시행령 제정
- 전문 무용단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시행(유관기관과 연계) 미국 NEA 시행 커뮤니티와 연계한 지원 옵션 등
- 전문 무용단 사이의 협업 시스템 지원
- 전문 무용단의 상주단체화 및 사회적 기업화 지원
- 늘어난 남성 무용수에 대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시행

5. 상설 춤 공연 및 시설 확충

재단법인 정동극장 사례



IV. 현실적 과제

1. 춤계의 폐쇄성

- 이해관계 집착, 이익집단으로서의 사적 운영에 안주

2. 공공기관, 사회의 부정적 인식

3. 직업무용단, 전문 무용단의 교류 미진

- 예술감독의 사유화, 수평 교류 빈약
- 공공성, 예술과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4. 춤 공공성을 위한 구심체 부재

- 춤 정책 입안 미진
- 춤을 통한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구심력 부재

5. 춤 저널리즘의 실종

V.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향방

1. 명칭, 조직 및 기능 확대 개편

- 춤 문화 전반(창작, 유통, 교육)을 연계한 지원기관으로 전환
(가칭 국립무용센터 혹은 Dance House)

2. 신규 사업개발

3. 전문인력 상임화

4.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

5. 춤 내부와의 소통 강화


2010년 기준 공연예술 부문에 지원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698억원임. 이중 중앙에서 지원된 기금은 425억원이고 지역에서 지원된 금액은 273억원임.

무용 부문의 경우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은 35억원(8.4%)이며 지역에서 지원된 금액은 51억원(18.9%)임

무용의 경우 단체나 사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 보다 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의 향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제 표 |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장인주 (무용이론가)



Copyright©2012 by DCDCENTER. All Rights Reserved.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¹⁾

Policies for professional dancers's career transition in Korea

장 인 주 (무용이론가)*

목 차

<p>I. 서 론</p> <p>II. 직업전환 대상인력 및 경로</p> <p>1. 직업전환 대상인력 분석</p> <p>2. 직업전환 경로 및 정책수요</p>	<p>III. 단계별 지원사업 과제</p> <p>1. 컨설팅 및 취업정보 지원</p> <p>2.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p> <p>3. 창업지원</p> <p>IV. 결 론</p> <p>참고문헌</p>
---	---

1)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2008년 발간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정책연구」 중 발췌한 내용으로, 2011년 대한무용학회 국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바 있음.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역임, E-mail: c.injoo@gmail.com

I. 서론

무용수의 조기 은퇴로 인한 문제는 무용이라는 예술장르가 활성화된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세계적인 고민이다. 이에 따라 발레의 역사가 오래된 구미국가에서는 그동안 무용수 복지뿐 아니라, 은퇴 후 전직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일찍이 무용수 직업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센터를 설립했다. 1973년 설립한 영국의 DCD(Dancers' Career Development)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1986년에는 네덜란드에서 각각 무용수 직업전환센터를 창립했다. 이들 센터는 직업전환을 비롯한 무용수 관련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들 간의 상호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자의 활동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국제연합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점차 무용수의 활동이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전 세계 무용수들의 은퇴 후 직업전환 문제를 총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1992년 10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의 대표자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 국제기구를 창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듬해인 1993년 10월 스위스 로잔에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국제연합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OTPD)'를 설립했다.

이 기구의 사업내용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타 장르의 무용분야에 비해 은퇴 시기가 빠른 발레계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05년 9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직업무용수, 은퇴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주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시 IOTPD 회장이자 네덜란드 직업전환센터장 폴 브롱크호스트(Paul Bronkhorst)가 참석하여 국내에도 유사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을 전했다.

네덜란드의 전문무용수 재교육을 위한 기금 운용 방식의 지원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무용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증진노력 지원정책' 중에서 새로운 방식의 지원 대상으로 받아들여 과감한 지원을 결정했고, 그 결과 2007년 1월 22일 문화관광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DCDC)는 무용기초예술의 기본요소인 인적자원, 그중에서도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의 육성과 권익보호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서구의 무용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역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무용수 상해 및 직업 활동을 돕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물론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사업을 통해 무용수가 은퇴 후에도 다양한 직업군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IOTPD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국고(2007년 2억, 2008년 4억, 2009년 5억, 2010년 2억8천7백, 2011년 3억, 2012년 2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 탓에 자율적인 사업구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인 지원금을 확보하고, 문화계 기금을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서구에 비해 후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무용수의 센터 회원가입비 외 분담금을 소집하는 등의 무용수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타 예술장르와 비교해 매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계적인 위치로 빠르게 발전한 센터가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는 직업전환센터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무용수 활동지원과 상해지원에 주력할 뿐, 설립당시의 취지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사업이 전면 취소되었다.

한국의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정책은 직업무용수를 포함해 대학을 졸업한 전공자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구상을 요구한다. 전문무용수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상황에서 서구의 전문무용수 정의와 동일한 직업무용수는 물론, 전문무용단체 소속 또는 프리랜서 무용수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한다. 매해 1천2백 명에 해당하는 대학졸업자도 대상으로 하여 전문무용수의 길로 입문하지 않아도 바로 타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용수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야한다. 창업을 목표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직업무용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더불어 대학중심의 전반적인 교육현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무용 근접분야 교육에 이르는 소극적 정책까지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절실하다.

본 글에서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당시 가장 주된 사업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외되어있는 무용수 직업전환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새로운 자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8년 직업전환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제시하였던 구체적인 안이 실현되기도 전에 무용인의 전반적인 복지개선 또는 예술활동 지원에 묻혀 그 중요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본 주제에 대해 대상인력 및 경로, 단계별 지원사업 과제 등으로 나누어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직업전환 대상인력 및 경로

1. 직업전환 대상인력 분석

직업전환 대상자 인적 구조를 살펴보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실시한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의 911개 표본 중 여성이 83.3%로 무용분야가 상대적으로 여성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절대적 다수인 여성 무용수들이 직업전환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 즉 출

산, 육아 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조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5세가 31.9%, 20대 후반이 34.1%로 20대 이하가 총 66%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40대 이상은 5.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 무용계 은퇴인력이 젊다는 것을 나타낸다. 젊은 인력이 직업전환에 나설 경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영역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젊은 인력이 은퇴 후 그대로 방치될 경우의 손실은 막대하며, 따라서 이들이 적시에 직업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전환 대상자의 교육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서 직업전환을 원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한국무용 전공이 46.1%, 현대무용이 19.9%, 발레가 15.7%로 무용실기 전공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무용수의 대부분이 다양한 직업훈련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임을 드러내며 따라서 은퇴 후 직업전환과정에서 직업전환교육이 절실함을 암시한다.

한편 전문무용수가 되기까지의 교육기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 6~10년이 36.1%, 11~15년이 30.8%로 6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4~5년이 11.1%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문무용수가 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긴 훈련기간을 필요로 함을 나타내며 그만큼 다른 분야의 경험이 적을 것임을 암시하여, 다른 분야로의 직업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 철저한 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이 57.8%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석/박사 역시 24.6%에 이르고 있는 반면 고졸 이하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무용분야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위주임을 드러냈다. 이는 대학진학이 목표인 한국의 교육실정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찍이 전문무용수의 진로를 택하기 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외에 예술계 특수목적학교인 예술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의 커리큘럼도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무용 교과과정을 모두 담고 있으며, 따라서 예술적 자질 향상에 중대한 시기에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속에서 예술적 능력함양의 기회를 많은 부분에서 놓치게 된다. 한해에 1천2백 명 정도의 대학 무용과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교과과정을 이수한 무용계인력이 직업전환과정에서 이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무용수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무용전공생들이 무방비하게 사회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무용계 종사자들의 노동형태 또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용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출처로 '주위의 동료/후배를 통해서'가 41.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 잡지를 통해서'가 23.8%, '인터넷을 통해서'가 18.3%로 드러났다. 이는 공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드러낸다.

건강보험(가입자 : 92.9%) 외에 국민연금(가입자 : 59.2%), 산재보험(가입자 : 34.7%), 고용보험(가입자 : 29.8%) 부문의 가입자가 턱없이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예술인

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공립단체 무용수에 비해 민간 단체 및 독립무용수들이 사회보장의 공백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어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직업전환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금'과 유사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무용수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무용수들의 경우 고용형태에 있어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이 4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이 32.3%, '파트타임/시간제'가 8.3%로 나타났다. 직업전환을 위한 재정운용에 있어 '공제회' 구조를 갖출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적립금의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적립금납부에 있어 특정한 혜택 등 정규직과 다른 방식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업인 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의 경우 연간 999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6.7%에 달했다. 한편 본업인 무용 외에 겸업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는 44.2%에 달했으며 겸업을 갖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46.0%가 '본업의 수입 부족'으로 답했다. 전체적으로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여준다.

외국에서는 임금 양극화가 주요한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무용계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임금수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임금 수준은 낮지만 복지수준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무용수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한편, 이 같은 높은 겸업 비율을 감안하여, 직업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겸업을 주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겸업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제1직업의 수입 부족'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가 34.7%, '관심 분야가 넓어서'가 7.8%로 드러나 겸업의 많은 부분이 무용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의해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겸업을 직업전환을 통해 본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2. 직업전환 경로 및 정책수요

무용수 은퇴 이후 직업전환 경로는 피고용자가 되느냐 혹은 자영업자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재취업'과 '창업'으로 나뉜다. 또한 진출하는 영역이 기존의 활동 영역이냐 혹은 새로운 영역이냐에 따라 '무용계 내'와 '무용계 외'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무용계 내로 진출하는 경우의 예는 예술감독, 단장, 안무가, 트레이너, 연출가 등 이다. 둘째, 무용계 외로 진출하는 경우의 예는 조명연출가, 무대제작자, 무대감독, 영상제작자, 기획자, 공연장 운영자, 매니저, 극장 기획자, 홍보마케팅담당자, 교수 및 대학 강사, 무용행정가, 무용평론가, 무용치유사 등이 있다. 그 외 기타 무용관련 사무 등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1)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은퇴 직후 일정기간 집중적인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관련 경비의 부분 또는 전체를 보조받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취업알선 및 자격증 취득,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문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이력서 작성양식, 면접방식 등 취업 요령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어학, 컴퓨터, 자격증 취득과정 등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용함으로써 은퇴무용수가 제2의 직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용계 내의 재취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적 인맥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던 무용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탈피하여,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적절한 인력이 양성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무용수로 활동할 당시 가졌던 겸업의 과반수가 무용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겸업을 직업전환을 통해 본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무용계 외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전문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이용하는 방안과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경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용계와 무용계 외의 영역을 연계하여 무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무용 경력에서 도출되는 능력이나 무용전공을 통해 받아온 교육 중 새로운 직업군들에 활용 가능한 것들을 목록화 하는 한편, 이를 무용계 외의 직업 영역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경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완전히 새로운 직업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용계 외 재취업의 경우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 창업의 경우

'창업'의 경우는 업종분석, 입지분석 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컨설팅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한편 무엇보다 재정지원, 즉 창업자금에 대한 용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재취업의 경우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창업상담을 지원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재정지원을 하거나 은행과 연계하여 저리대부의 형식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센터의 특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처 간 협약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무용계 내 재취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용계 내 창업은 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

업에 필요한 무용계 내부 정보를 확보한다. 또한 직업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무용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무용계 외 창업 또한 무용계 외 재취업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단, 무용계 외 창업의 경우 사업의 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실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Ⅲ. 단계별 지원사업 과제

1. 컨설팅 및 취업정보 지원

직업전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 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취업주체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 만족스러운 직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많은 경우 취업 주체는 직업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직업전환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은퇴무용수의 경우에서와 같이, 때때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체에 대한 분석 즉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나에 대한 이해'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담 및 컨설팅 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직업전환의 첫 단추로서 컨설팅과 함께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체계적이고도 풍부한 '정보지원'이다. 정보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직업군 속에 제2의 직업을 찾아나서는 데에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가려내어 그에 시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직업전환센터에서는 직업전환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취합하여 각 개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직업전환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 및 컨설팅 그리고 정보지원은 전 지원과정의 진입로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원대상자 자신들이 센터로부터 제공받기를 가장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직업전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정보지원 부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이나 재정지원 등 가시적인 지원영역들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상담'으로 인식될 경우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지원이 어렵게 된다.

영국 DCD(Dancers' Career Development)에서는 무용수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직업전환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 '심리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전문상담사를 고용하여 1대1 상담, 심리측정,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조연자그룹과의 네트워킹, 인생코칭 세미나 등을 통해 무용수들이 심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에 있어서 DCD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용수 친화적인 환경'으로, 무용수의 자발적인 의

사를 존중하고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직업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SOD(Retraining Program for Dancers, Stichting Omscholingsregeling Dancers)에서는 직업전환, 연금, 건강 및 경제 등에 대한 방대한 범주의 상담을 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직업상담사의 고용 없이 센터장이 도맡아 하고 있다. 또한 직업전환 기획안은 지원자 스스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무용수의 자발적인 의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직업전환 센터는 모두 무용수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는 직업전환과정을 강조하고 많은 부문에서 무용수 스스로의 판단에 직업전환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나 이렇게 무용수 자발적인 직업전환을 강조함으로써 자율적인 과정을 유도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기 분석 내지 경력 분석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내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참고할 만하다. 지원대상의 역량 및 장점을 진단하고, 잠재역량을 찾아 적절한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전직지원프로그램 '파워풀 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대1 컨설팅과 그룹교육, 시뮬레이션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 외에도 전직계획수립을 도와 생애설계 지원을 하며, 취업 및 창업 진행 중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전직을 유도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 컨설턴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컨설팅 과정은 직업전환과정에 접근함에 있어 '직업의 전환'보다는 '경력(career)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경력'은 '직업 + 자신의 이전 직업분야'의 개념으로, 자신이 이전 직업에서 구축해온 인맥, 지식, 기술, 성과, 경험 등을 총괄하여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보, 즉 개인이 어떤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전문성(profession)을 가진 사람인지의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직업군에 접근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경력' 중심 접근방법을 통해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접근이 범할 수 있는 목적전치의 우를 피할 수 있다. 컨설팅과정은 이렇게 개인의 경력, 그 중에서도 어떠한 이전 가능한 기술(transferable skill)을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찾아 나섬으로써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 본 해외와 국내의 직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방향설정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직업전환과정에서 학연중심의 폐쇄적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보면, 먼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해 보다 개방적인 정보 공유를 모색할 수도 있다. 정부 간 연계를 통해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민·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취업 알선이나 적실한 기업정보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를 중심으로 양성적인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음성적 관행을 허물고 보다 효과적인 직업전환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담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도 분석적인 직업전환과정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집단을 고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영국 DCD에서는 센터의 전 직원이 상담을 맡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고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SOD에서는 전문 상담사 없이 센터장이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센터 직원이 직접 상담을 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수위의 상담 형태가 가능한데, 전직과정의 핵심일 수 있는 이 분야에 있어 가급적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첫째, 센터와 계약을 맺은 컨설팅 업체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둘째, 은퇴무용수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센터가 파악하여 관련 기관과 연결하거나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재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업전환센터가 대학 교육기관, 무용 및 문화예술교육기관, 노동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전환센터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조사하여 무용수가 개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교육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무용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분야의 인맥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직업전환기관 중 하나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함께 두 번째 방법을 병행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전환센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연수 혹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예비 전문무용수인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무용수를 이해하고 나아가 무용수의 직업전환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학부모의 협력체계는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동반되는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취업과 동시에 일찍이 직업전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얻어 미래를 설계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학생지원, 교사지원과 더불어 학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상담과 학부모연수로 구분하여 자녀의 직

업전환교육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학부모 자신의 창업모델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직업전환을 꿈꾸는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재교육프로그램은 필수과제이다.

3. 창업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모든 활동분야의 현역전문무용수를 대상으로 은퇴 후 종사하고 싶은 희망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무용관련 직업으로 전직하고 싶다는 의견이 66.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용 외 타분야에 대한 희망은 26.4%에 불과했다. 또한 발레분야 현역전문무용수에 대한 은퇴 후 희망직업 선호도 조사(임영숙 2007)를 살펴보면, 무용 및 문화영역 내에서의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81.4%로 압도적이다. 5.7%만이 다른 분야로의 전직을 희망하며, 나머지는 무응답인 경우였다. 같은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창업'을 통한 전직에 대한 구상에 해당하는 사설학원 설립을 희망한다는 의견은 2.9%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보다 높게 나타난 의상(4.3%), 개인교습(12.9%), 무용치료(5.7%), 무용관련 사무(5.7%) 등도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창업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사실상 창업을 통한 전업에 대한 희망은 적잖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은퇴한 발레무용수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경우(13.3%)가 모든 전직 종목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현역무용수들이 재정적인 부담과 창업이라고 하는 모험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인해 첫 번째 직업전환의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을 통한 전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업을 위해서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영과 재무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기본적 능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창업자금일 것이다.

다양한 창업에 성공 혹은 실패한 무용수들의 실전경험 강연을 비롯해 무용의상 대여업, 무용학원, 무용치료, 공연기획 홍보회사 등 무용 인접분야의 시장전망, 해당분야의 창업을 위한 기본 정보(협력업체, 판로, 홍보방법, 협력파트너 등) 등이 집단적 혹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등의 상시적인 지원을 센터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은퇴무용수들의 개별적 사례를 데이터로 축적하여 정보뱅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슷한 종류의 창업을 희망하는 무용수들끼리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수집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도 긴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창업 준비를 위한 기간 동안, 실직상태에서 생활을 꾸려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 창업을 위한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비용 등은 취업을 통한 직업전환 때와

마찬가지로, 직업전환센터가 담당해 주어야 할 지원이 될 것이다.

2009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5년 이상 전문무용수의 경력을 갖고 있는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실업급여 지급이 될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실업수당과 창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필요성은 취업을 통한 전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창업을 위해서는 그 밖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여성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경우는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창업지원의 사례는 네덜란드 SOD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무용단체연합과 무용수 노동조합이 정부에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를 제기한 후, 1986년부터 정부로부터 1백만길더(약 5억원)을 지원받기 시작하여, 현재 운영하는 '네덜란드 무용수 재교육 기금(Dutch Retraining Fund)을 마련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은 무용전공 학생과 전문무용수를 위한 직업소개, 직업전환, 후생연금, 건강, 경제 등 여러 가지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상담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무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교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받고 싶은 교육과 하고 싶은 직업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무용을 하는 동안 무용수는 후원펀드에 가입하고 투자해야 한다. 은퇴 후 지원받고 싶은 무용수들은 무용생활을 하면서 자기 총수입 중 1.5%를 기금으로 납부하고 소속 무용단체에서도 2.5%를 납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의 4%를 미래의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에 투자한다. 은퇴 후 12개월 이내에 교육기획안을 신청하면 교육비와 교육기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액수는 무용 활동기간,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수준 그리고 교육기획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력에 최소 72회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일 경우, 평균 총 8만5천유로(약 1억2천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창업을 위한 준비자금으로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이다. 또한 5년 이상 최소 48회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일 경우, 일년에 2천5백유로 씩 최고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4년간의 수혜금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천5백만 원 정도가 된다.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무용수의 75%가 12개월 안에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연간 약 60만유로(약 8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역무용수들의 활동영역이 넓고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직업무용수들과 이들이 속해있는 무용단이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네덜란드 SOD의 재정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가운데, 41.4%를 차지하는 것이 무용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구성된 자금이다. 거기에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에서와 같은 경우를 한국에 적용해 보자. 우리나라의 월 200만원 수입의 무용수가 3만원씩(1.5%), 소속 무용단이 매회 5만원씩(2.5%) 72회에 걸쳐 분담금을 납입한다면, 10년 뒤 축적되는 원금은 6백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금액을 아무리 잘 운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10년 뒤에 1억원이 넘는 돈이 되게 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무용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핵심은 이러한 무용인들의 분담금이며, 국내 무용수들의 넉넉지 않은 수입이 갑자기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것은 무용수들이 공통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연간 1만원의 상징적인 회원가입비를 받고 있다.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3,800명이 국내 전문무용수의 숫자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이들 전원이 1만원 연회비를 납부하게 된다고 해도, 그 금액은 연간 3천8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재정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이다. 센터에서는 직업전환과 관련하여 특정분야(클리닉강사, 무용전문스태프인력 등)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만을 실행했으며, 2010년 이후 그나마도 중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용수 개인의 분담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직업전환교육까지만 원하는 경우와 창업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원하는 경우에 대해 분담금의 비중을 차별화 혹은 이원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 SOD도 초기의 정부의 기초재정지원금에 무용수들의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다가 10년 뒤 재정파산에 이르렀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매년 정부예산이 집행되도록 재정구조가 개편되면서, 비로소 지금의 틀을 갖게 되었다.

결국 공적인 재원의 규모 여부에 따라 지원의 폭은 창업자금 용자 혹은 제공까지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네덜란드 정부 정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창업자금의 용자와 적정한 분담금을 납부한 무용수들에 대한 창업재정 지원은 충분히 실천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 지원금이 이에 못 미친다 해도 기본적으로 용자사업은 위험부담이 있을 뿐 원금을 축소시키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당한 심사기준을 거쳐 통과한 인원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 1>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 경로에 따른 정책 수단의 구체화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 경로		취업 정보지원 및 컨설팅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지원
재취업	무용계 내	공적네트워크 구축	위탁교육기관과 연계망 구축 맞춤형프로그램 지원 재교육프로그램 세부정보망 구축	재교육 보조금 지원
	무용계 외	부처 간 협업		
창업	무용계 내	공적네트워크 구축 직업창업프로그램	창업 교육 지원	창업자금 지원
	무용계 외	부처 간 협업		

IV. 결 론

지난 2004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광철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을 중심으로 '예술인 공제회 중심의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고,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당시 한나라당 정책공약에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통한 창작기반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예술인 공제회 설립 검토'가 들어있는 등 국내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2010년 서갑원 의원을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문무용수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듯 예술인 전체에 대해 정의내리기가 어렵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자로서의 필수 자격요건인 근로자에 예술인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가 어려워 계속 유보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최고은 아사 사건이후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한 국가적 관심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욱이 부실대학 선정에 따른 예술대학 관련 논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자살 등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심각한 현상들이 잇달으면서 정치권으로 복귀한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반대에 맞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11년 드디어 '예술인 복지법'은 제정되었고, 오는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를 조율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의 요지는 첫째, 예술인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둘째, 산업재해보험을 가능케 하며, 셋째, 일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공연영상분야에 종사하는 5만 7천 명 예술가를 위한 이 법안이 예술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성격 때문에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산재보험 혜택을 줄 예술가의 기준설정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제2조에서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은 이미 근로자, 특수업무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로형태로 규정할지가 큰 과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등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안정과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지원, 예술인의 복지 및 근로 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 및 운영 등을 핵심 사업으로 맡을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재단설립에 책정된 예산은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지원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 핵심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문화예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실업급여에 대한 보장이 빠져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예술인 최저생활 보장제도 'WIK', 프랑스의 실업수당지급제도 '앵테르미탕',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장금고 'KSK' 등 문화선진국이라 일컫는 국가에서는 예술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실행중이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를 구분하고 관련 직업을 세세히 나누어 예술인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 확립에 앞서 1984년 영화인 복지재단, 2005년 한국 연극인 복지재단, 2007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했다. 특히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예술인공제회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기대와 더불어 국가의 지원이 타 재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예술인 복지에 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역할과 그 정체성에 대해 방향을 잃어가고, 국고지원 또한 미흡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글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실현에 앞서, 매우 구체적이고 선진적인 직업전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앞서 제시한 무용수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즉 컨설팅,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업지원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센터가 직업전환사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능을 특화하여 직업전환지원기구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사업이 제외되어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용인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당장의 예술작업을 위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용인이 미래를 기획하고, 무용직종이 보다 전문화, 직업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버리고, 무용예술 확대,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의 시각이 필요하다.

예술인 5만 7천 명 중 무용인은 대략 5천명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형태의 예술인은 창작예술가 8만 898명, 실연예술가 6만 9969명, 예술스태프 2만 5130명 등 모두 17만 5997명이다. 이 결과에 비추어 무용인도 상대적으로 1만 5천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프리랜서 무용수는 전체의 4/5에 달한다. 이들은 예술인공제회가 가동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수혜대상자로서 무용인 스스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다. 어느 문화선진국의 복지제도도 투쟁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듯이 무용계 내부의 강한 의지가 모여져야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국립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서울발레시어터(2005), 직업무용수, 은퇴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상철(2008. 5), 예술인 복지제도를 당연하게 만드는 법제도안 메모, 예술인복지연대 1차 워크숍
 문화관광부(2007), 무용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
 문화관광부·한국노동연구원(2005),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문화관광부·한국노동연구원(2006),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한국노동연구원(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임영숙(2007),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연구-발레를 중심으로, 숙명
 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예술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장인주(2010),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실태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207-223.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8),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삶!-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지원정책의 현재와 미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추진위원회(2006), 전문무용수를 위한 문화정책과 지원센터 운영방안 모색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7),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8),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06),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 구조와 정책 지원
 한국노동연구원(2006), 유럽의 문화예술인력 고용의 특징, 국제노동브리프 4권 10호
- Australia Council(2004), The life of a dancer : Employment, training and career paths,
 Resourcing Dance : Subsidised Australian Dance Sector
 Centre National de la Danse(2005), Le Centre National de la Danse aujourd'hui, rapport
 d'activité 2006
 Joan Jeffri(2005), After The Ball is Over-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1, No.3, pp.341-355
 Joan Jeffri, David Throsby(2006), Life after Dance : Career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Spring 2006), Vol.8, No.3, ABI/INFORM
 Global, pp.54-63
 Joysanne Sidimus(1987), Exchanges : Life after dance, Press of Terpsichore Limited, Toronto
 Kelly Hill(2005), A Profile of Professional Dancers in Canada-Based on a questionnaire form
 the DTRC, Hill Strategies Research Inc (February 16, 2005)
 Michael Crabb(2005), Dancers' career Transition-Monaco Dance Forum, The Dancing Times
 (February, 2005)
 Mindy N. Levine(2004), Beyond Performance :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Dancers and The Art
 of Dance, The aDvANCE Project
 Ministère de l'emploi, du travail et de la cohésion socia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2004), La reconversion des danseurs : une responsabilité collective
 William J. Baumol, Joan Jeffri, David Throsby(2004), Making Changes :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ancers to Post-Performance Careers, The aDVANCE Project

경기도교육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www.tedu.org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네덜란드 전문무용수 재교육센터(SOD) www.kunst-cultuur.nl/KCPV/
미국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CTFD) www.careertransition.org
소상공인지원센터 <http://www.sbdc.or.kr/>
스위스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NPT)www.dance-transition.ch
영국 전문무용수지원센터(DCD) www.thedcd.org.uk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국제연합기구(IOTPD) www.ioptd.org
전문무용수지원센터(DCDC) www.dcdcenter.or.kr
캐나다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센터(DTRC) www.dtrc.ca
프랑스 국립무용센터(CND) www.cnd.fr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 발제 Ⅲ |



민간예술단체의 살아남기와 고민

김인희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민간예술단체의 살아남기와 고민

: 서울발레시어터 생존과 미션 since 1995

김인희(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우리는 행복한가?

얼마 전 잡코리아에서 남녀직장인 1,709명에게 직업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직업 1위로 '예술가'(18.7%)가 뽑혔다. 사람들이 예술가를 선망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였다.

네델란드 화가이자 경제학자인 한스 애빙은 <왜 예술가들은 가난해야 할까?> 라는 책에서 'Art Rush'를 이야기하면서 금광을 찾아 몰려드는 골드러쉬(Gold Rush)처럼 예술로 성공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정작 예술계도 프로스포츠처럼 1등이 모든 성과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정부지원 및 기업후원의 혜택도 1%에게만 돌아가서 부유한 소수의 예술가와 99% 가난한 다수의 예술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예술가와 민간예술단체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의 시선보다 더 고달프고, 성공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언제나 창작과 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서울발레시어터가 17년간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국공립예술단체와 달리 매년 하는 자원, 운영 그리고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국공립예술단체 집중 지원 및 그 결과

1) 집중 지원

-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확보로 인해 국공립예술단체는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 민간예술단체보다 좋은 작품과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립발레단의 경우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예술단체, 특히 발레단의 경우에는 남자무용수 확보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 꾸준한 창작활동과 작품의 퀄리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단체에 쏠려있는 지원정책이 무용계 전체의 균형을 흐드는 현상은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2008년 기준 인건비>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	3,700~4,600만원	3,700~4,000만원	
솔리스트	3,240만원	2,200~2,900만원	
군무무용수	2,500만원	2,100~2,400만원	
정단원			1,460만원
연수단원	출연수당	출연수당	출연수당

2) 국립예술단체 방방곡곡

- 전국문화예술회관 중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 미만 공연장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국립예술단체가 무상으로 공연한다. 그래서 민간예술단체와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 한다.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회관연합회 우수 공연 지원 프로그램은 공연장의 자부담이 있고 참여 단체에는 연 4~5회 정도로 초청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100% 전액이 지원되고 9회 가량 참여하는 국립예술단체 방방곡곡 프로그램에 비해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

	2010년, 2011년	공연장 자부담
국립발레단 방방곡곡 사업	총 18회	0%
서울발레시어터 한문연 우수공연	총 10회	30%, 50%

3) 인턴지원

- 국공립예술단체는 대학 졸업(예정) 무용수들을 정단원, 준단원, 연수단원 이외에도 정부지원 인턴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력수급 불균형을 가져왔다. 특히 남자무용수들은 급여, 공연수당 문제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 2012년부터 민간예술단체에도 문화부 인턴 지원사업이 확대 지원되어 인력운용에 형평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2. 민간발레단 현황

1) 현재 단체

○ 총 55개 단체(2011 대한민국 국립발레학교 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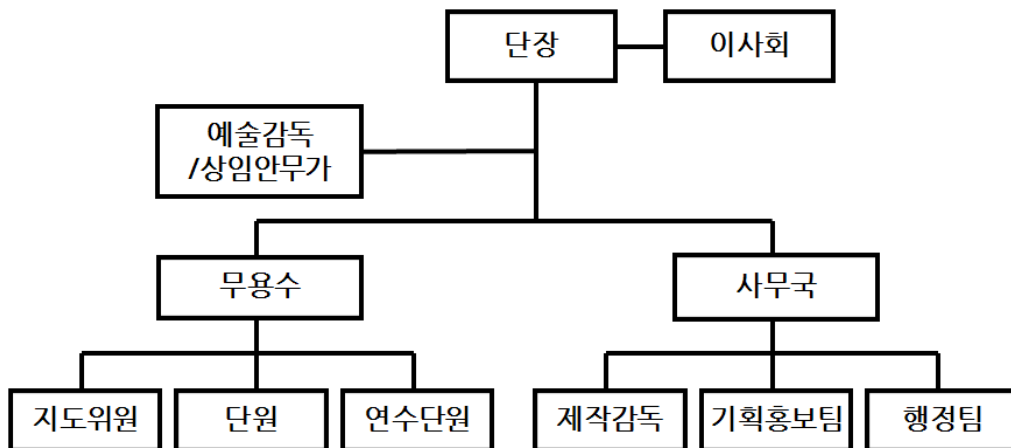
- 재단법인 : 3개(국립, UBC, UBC2)
- 사단법인 : 4개(SBT, 조승미발레단, 코리아발레씨어터, 발레류보브)
- 임의단체 : 48개(광주시립발레단, 이원국발레단, 서울와이즈발레단 등)

2) 주요 활동 민간발레단

단체명	소속형태	주요 자원	직업무용수
유니버설발레단	재단법인	재단 지원금, 공연수입 등	급여계약
서울발레씨어터	사단법인	공연수입, 상주단체, 사회적기업 등	급여계약
광주시립발레단	임의단체	시 지원금, 공연수입 등	급여계약
이원국발레단	임의단체	상주단체, 공연수입 등	급여&출연수당
서울와이즈발레단	임의단체	상주단체(2012. 6부터), 공연 수입 등	급여&출연수당
서발레단	임의단체	상주단체, 공연수입 등	출연수당
발레블랑	임의단체	공연수입, 후원금	출연수당
김선희발레단	임의단체	공연수입	출연수당

3. 서울발레씨어터 운영 및 재정

1) 조직



- 2012년 인원 : 총 40명(무용수 30명, 사무국 10명)
- 이사회 : 이사장, 단장(상임이사/대표), 이사
 - 발레단의 재원조성 및 비전 수립을 함께 고민하는 이사회로 구성하고 있다.
- 예술감독(상임안무가) 및 무용수 : 상임안무가, 지도위원, 단원, 연수단원
 - 창작발레가 단체의 핵심 미션이기에 상임안무가가 상주 활동하고 있으며, 단원들은 발레와 현대무용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사무국 : 제작감독, 기획홍보팀, 행정팀(과장), 의상실장
 - 초창기 사무국에는 다른 민간예술단체처럼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였으나, 기획홍보팀과 제작감독이 단체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전문적인 기획 및 제작 프로덕션을 운영하게 되었다.

2) 재정

- 공공지원금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2009~2012년), 노동부 사회적기업(2010~2014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자립방안을 모색 중이다.
- 기업후원은 2010년까지 CJ문화재단(연간 5,000만원~1억원)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세스코의 기업 후원을 받았으며, 꾸준한 후원기업을 확보 중이다.
- 개인후원은 예술단체의 사회적 활동에 공감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홈리스발레교육은 크라우드펀딩(1,100만원)을 성공하게 하였다.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	합계	9억4,130만원	10억2,800만원	14억6,500만원
	공연 및 교육 (공연 횟수)	6억2,780만원 (46회)	5억4,000만원 (32회)	10억6,100만원 (39회)
	기금지원 (사회적기업)	1억2,750만원	3억,130만원 (1억3,600만원)	2억8,400만원 (1억4,100만원)
	기업후원	1억3,940만원	7,500만원	4,500만원
	기타 (개인후원)	4,660만원 (2,000만원)	1억1,000만원 (2,000만원)	7,500만원 (6,100만원)
지출	합계	9억3,800만원	9억6,400만원	14억3,600만원
	인건비 (인원)	2억7,770만원 (30명)	3억6,000만원 (35명)	4억5,600만원 (40명)
	제작비	4억1,990만원	3억8,000만원	7억 100만원
	경상경비	2억4,040만원	2억2,400만원	2억7,900만원
수익		330만원	6,400만원	2,900만원

3) 공공지원금 현황

○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 내용 : 2009년 11월에 시작된 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은 청년 실업 구제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시 2년 추가 지원되어 총 5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 기간 및 자부담 한계 :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이 중요하기에, 매년 10%씩 자부담 비중이 증대된다. 그래서 매출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며, 5년 이후 추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취약계층 확보 어려움 : 기존 예술단체에서는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함께 작업한 예술가를 정규단원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싶으나, 노동부 채용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청년실업자 구제가 주요목적사업이라, 채용대상자가 제약조건이 많다.

○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

- 내용 : 2009년부터 진행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예술단체의 공연 및 교육 콘텐츠를 지역 공연장에 개발, 제공하여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공동사업 한계 및 기간 제한 : 2년마다 기간 한정으로 지원되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 예산에 비해 수행해야할 예술단체의 사업이 많아져서, 결과론적으로 지원보다는 예술단체 자부담이 늘고 있다.

항목	지원기관	2010년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노동부	1억2,200만원	1억4,123만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	경기문화재단	7,200만원	8,000만원
우수공연사후지원사업	예술위원회	4,000만원	-
공연 지원사업	문화관광부 /서울문화재단	5,500만원	3,000만원
교육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1,500만원
기타		2,432만원	1,800만원
계		3억1,332만원	2억8,423만원

4. 서울발레시어터 비전 : 예술과 사회

1) 예술 : 외바퀴 자전거

<창작과 대중화>라는 미션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민간예술단체는 운영을 위한 자원조성과 창작 활동을 스스로 운영

하기엔 외바퀴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어렵다. 서울발레시어터는 창단 15년이 되는 해부터 사업별 지원금이 아닌 사회적 기업,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등 공공 지원금과 기업 및 개인 후원 확대를 통해 조금은 단체를 안정되게 운영해오고 있다.

2) 예술과 사회 : 두바퀴 자전거

예술단체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동참을 통한 사회를 반영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게 되어, 지속적인 단체운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다. 그래서 서울발레시어터는 두바퀴 자전거처럼 예술과 사회의 만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예술과 사회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

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예술의 감동이 확대되어 단체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갈 것이다.

3) 2012년, 앞으로의 고민과 기대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2012년.

민간예술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나 모든 단원 및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창작의 욕을 잃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민간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재원확보와 자립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 지원 쏠림 등 차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루 속히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 도움글 |



춤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상상과 제언

김채현 (춤 비평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춤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상상과 제언¹⁾

김채현 (춤 비평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1. 취업 말고 신종 창업도 있다

취업(就業)이 국내외적으로 톱 이슈인 지금, 춤계에서도 취업은 어느 면에선 최대 관심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계에서 취업은 그다지 공론화되지 않는다. 어쩌면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듯한데, 그렇게 예술계 전반에서 잘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굳이 상론할 일은 아니다. 아무튼 춤계 취업 문제를 외면하거나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춤계의 저조한 취업이 궁극적으로 대학의 무용 관련 학과와 춤 무대 현장 등 춤의 여러 예술적 기반을 뒤흔들 가능성마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성의껏 대처해야 옳다.

지금까지 춤계 취업 문제는 무용단 입단이나 무용수들의 연간 수입 및 생계 측면에서 더러 거론되어왔다. 이런 측면에서의 논의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는 한편으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 그래서 논의의 화두로서 취업을 넘어 창업(創業)을 자극하는 사례를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

춤 전공자가 창업을 고려할 때 으레 무용학원을 연상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춤을 응용하는 기업이 올해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기록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한다면, 선뜻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기업은 존재한다. 서울에 소재한 기업 'BnR'이 바로 그 기업이다.

이 회사는 피겨 스쿨, 특수 의상 제작, 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은 100명 규모이다. 피겨 스케이터들의 지상 훈련, 피겨 스케이터와 무용수 및 배우들의 특수 의상 공급 그리고 일반 개인들에게 건강 증진 차원의 개인 춤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는 올해 갓 30대에 접어든 인물로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였다.

피겨 스케이터는 상시적으로 훈련을 필요로 하며, 'BnR'은 피겨 스케이터 개개인들을 위해 상체표현법, 연기법, 근력 컨디셔닝, 폴 하니스 트레이닝 등의 교육 과정을 열고 있다. 국내 유일의 피겨 스쿨로 알려진 이 학교에서는 특히 무용 전공자들이 상체표현법과 연기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의상 역시 피겨 스케이터들뿐만 아니라 무대 연기자들에게 무용 전공자의 감성을 살리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연간 2천벌의 춤-무대 의상을 제작해냄으로써 이 회사 매출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¹⁾ 이 글은 2012년 4월 한국춤비평가협회가 대구에서 주최한 신춘 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을 추가 보완한 것임.

'BnR'의 사례가 매우 부분적인 특수 사례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아무튼 무용학도나 무용 전공자들이 더욱 주목해볼 사업 영역은 'BnR'의 홈케어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다면적이다.

홈케어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남녀 세대 불문하고 춤과 운동에 익숙지 않거나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춤으로써 운동을 가까이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목표를 둔다. 웨이트 머신이나 판에 박은 반복 훈련을 탈피해서 춤을 활용함으로써 운동을 자연스런 활동으로 체질화시키는 방법은 일단 독특하다 하겠다. 춤교육에 필요한 바나 플로어도 트레이너가 직접 준비하므로 소비자의 거주장스러움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무용학원이나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춤 수련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개인 가정이나 사무실 등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특정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맞춤형 개인 춤교육이라 하겠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개인이 장소를 이 회사의 스튜디오로 옮겨 수련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소비자의 모발과 건강 체크 및 식단 관리를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즐고, 춤웹진 제31호 '심층기획' 기사 참조)

홈케어 프로그램은 무용학원처럼 무용 전공자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홈케어 프로그램은 춤을 건강 관리와 연계시키고 또 물리적 공간을 갖추지 않고서도 1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무용학원과 차이가 나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춤 직업 측면에서 'BnR'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춤을 응용하는 직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용단 입단이나 무용수들의 연간 수입을 중심으로 한 취업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2. 제자리걸음, 벗어나야

1992년 문예진흥원이 발표한 '문화예술통계'에서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무용(83.8%)이었고, 그 다음에 양악(74%), 디자인(71%), 영화(70.1%) 분야 순이었다. 그런데 그 10년후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200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 나타난다(조사 분야: 무용,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대중예술)

- 예술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전체 예술 분야 평균)
많이 느낌 18.1%, 다소 느낌 40.5%, 보통 13.8%
- 예술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무용 분야)
많이 느낌 15.8%, 다소 느낌 54.9%, 보통 9.8%
- 경제적 한계에 대한 인식(전체 예술 분야 평균)
많이 느낌 42.1%, 다소 느낌 28.9%, 보통 12.5%
- 경제적 한계에 대한 인식(무용 분야)

많이 느낌 51.1%, 다소 느낌 35.3%, 보통 4.3%

그 5년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발표한 '2007 전문무용수 실태 조사'(2006년도 기준, 표본수: 942건; 국공립단체 소속 49.6%, 민간 단체 단원 36.7%, 프리랜서 등13.7%)를 보아도 현장 무용인들의 상황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난다.

- 무용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
 많이 느낌 21.8%, 다소 느낌 49%, 그저 그러함 18.4%
- 자신의 경제능력 한계에 대한 인식
 많이 느낌 49.7%, 다소 느낌 33.4%, 그저 그러함 14.2%
- 무용 활동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매우 만족 4.1%, 다소 만족 35.%, 그저 그러함 35.5%
- 무용 활동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
 매우 낮음 58.7%, 다소 낮음 28.5%, 그저 그러함 11.7%
- 무용수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매우 낮음 14.6%, 다소 낮음 32.3%, 그저 그러함 42%

이 조사는 전문무용수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또 조사 대상인 가운데 국공립 단체 소속이 절반을 차지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앞서의 무용인들의 직업 만족도나 실태 조사치와 바로 비교될 수 없다. 그래도 2003년도의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와 비교해서 경제적 한계나 예술적 한계에 대해 몇 년 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응답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7년의 조사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지하다시피, 춤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으므로, 취업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간 시점인 2005년도 문화관광부 조사에서 무용인이 더 높은 보수로 이직을 염두에 두는 비율이 75%였고, 1개 이상 부업을 수행하는 비율도 40%(2007년 41%)에 육박했다(2005년도 조사시 임금 규모: 전체 무용인 월 평균 임금 145만원, 무용수 소직군 월평균 임금 147만원, 안무자 소직군 월평균 임금 116만원, 대학교수 및 강사 전체 월평균 임금 153만원, 사설학원 강사 월평균 임금 89만원, 개인교습자 월평균 임금 120만원). 말하자면, 지난 10년 혹은 20년 사이 춤계는 취업 측면에서도 정체했거나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이런 지적은 근래 몇 해 사이 갈수록 찾아지는 대학 학과의 폐지, 예술계 중고교 입시 경쟁률 저하 현상으로 뒷받침될 것이다.

3. 전망은 있다고 한다

3월 하순 한국고용정보원은 2010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 759개 직업의 현직 종사자 2

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10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이 조사에 소개된 각 직종의 만족도 점수를 잠시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작곡가 · 학예사 · 성우 · 신부 98점, 국악인 · 아나운서 97점, 성형외과의사 95점, 화가 · 연극배우 93점, 안무가 · 소설가 92점, 성악가 · 목사 91점, 시인 90점, 국악연주가 · 변호사 89점, 전도사 87점, 국회의원 86점, 평론가 84점, 속기사 83점, 무용가 82점, 방송연출가 80점, 통역가 79점, 수녀 · 가수 78점, 연주가 77점, 연극영화 감독 · 방송기술 감독 73점, 승려 · 개그맨 · 코미디언 71점, 보조출연자 70점, 영화배우 · 탈렌트 66점, 신문기자 · 카피라이터 · 치과의사 64점, 연극연출가 62점, 전통예능인 · 방송기자 60점, 서예가 · 사진작가 · 만화가 54점, 방송작가 46점, 사진기자 45점, 영상그래픽 디자이너 38점, 애니메이터 25점, 대중무용수(백댄서) 14점.

여기서 직업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 항목은 1) 사회적 기여도, 2) 직업지속성, 3) 자기 발전가능성, 4) 업무 환경 및 시간적 여유, 5) 직무만족도로 나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교육과 예술 분야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정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족도가 최상위로 꼽힌 직업도 더 나은 수입보다는 시간 여유가 더 많은 직업이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 만족도가 일반 통념을 쉽게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는 직업만족도가 어느 정도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또한 안무가나 무용가(= 무용수)의 직업 만족도는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아 보인다. 비록 상대적 수치이긴 하지만, 안무가나 무용가의 직업 만족도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춤에 몰입하는 그들의 의지가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만족도를 근거로 춤계의 앞날을 점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직업의 재직자가 일자리를 전망한 내용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 전망에서 나타난 각 직업의 향후 5년간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이 조사결과에서 전망된 춤 전공 관련 직업은 아래의 세 가지이다.)

■ 안무가

- 1) 안무가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 이전의 무용 공연은 대부분 순수 창작활동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다거나 어린이나 청소년, 젊은 연인 등 특정한 대상을 겨냥한 타겟형 공연으로 제작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무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안무가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3)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있고, 문화발전 육성기금 등 공공 지원제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향후 무용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4) 안무가들은 안무 실력을 기반으로 연극, 뮤지컬 등으로 진출하거나 재즈, 스포츠 댄스, 요가 등을 교육하는 등 영역을 확대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 무용가

- 1) 무용가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순수 창작활동에 머물던 무용공연의 제작 관행이 어린이, 청소년, 젊은 연인 등 특정한 대상을 겨냥하거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무대 진출을 염두에 두는 등 타겟형 제작으로 전향(轉向)되면서 무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 3)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있고, 문화발전 육성기금이 무용분야에도 지원되는 등 공공 지원제도의 다양화로 향후 무용시장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 4) 특히 최근 신진 무용가들을 주축으로 전문 무용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용가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 무용단의 수는 제한적이며 이들의 이·전직도 적은 편이어서 직업 무용단의 입단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이다. 따라서 창작 작업과 무용공연을 위한 전문 무용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중무용수

- 1) 대중무용수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요계에서 댄스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듣는 음악 못지않게 보는 음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백댄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 2)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수의 백댄서 외에도 각종 댄스대회나 놀이공원, 호텔, 클럽, 파티 등에서의 댄스관련 공연에서 대중무용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댄스비디오를 내거나 댄스강사로 활동하는 등 대중무용수의 활동영역 또한 다양해지었다.
- 3) 사설무용단의 경우 수시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긴 연습생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대체인력에 의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다.
- 4) 방송사 무용단의 경우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일자리 증가는 없는 편이며,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입직경쟁률은 치열하다.

이상의 전망에 비추어, 향후 5년간 무용인들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점에서 취업이나 창업 측면에서 춤계가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취업은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 생각해보자. 고용이 정체(停滯)되거나 지지부진한 부문 즉 고용 전망이 크지 않은 부문에서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 리 만무하다. 안무가, 무용가, 대중무용수 고용이 현상태에 머물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용이 늘어도 어느 정도일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의 지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대학들이 무용 관련 학과들에서 양성하는 춤 전문 인력의 낮은 취업을 안무가, 무용수, 대중무용수 부문의 취업 증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고용이 미진하거나 매우 불투명한 부문에 매달려 대학 학과들이 취업 증대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는 승율(勝率)이 매우 낮은 전략이자 참으로 어리석으며 심지어는 전략의 부재를 웅변한다.

4. 신종 직무 교육 도입, 그리고 창업 권장 분위기 강화

춤 취업 활성화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제시되는 방안으로 춤 공연 활성화가 들어진다. 춤 공연 활성화는 춤 인식을 높여 춤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므로,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전국의 춤 공연이 행사 건수에서 포화 상태라는 지적 그리고 일반인들의 춤 공연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비추어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전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일반인들을 춤 공연으로 유도하고 또 춤 공연이 행해지는 지역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양질의 공연을 위한 창작자가 발굴·육성되고 지역 사회의 협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또 공공 지원 재정 확충과 효율적 지원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때문에 춤 공연 활성화가 춤 취업 활성화의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되 실제로는 불투명한 점이 적지 않다. 게다가 춤 공연 활성화가 춤 취업 즉 춤 관련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사실상의문이다.

춤 공연 활성화와 춤 취업 활성화가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점의 전환부터 요구된다. 관점의 전환은 춤 전공자가 취업할 만한 직무 영역을 분석하고 그에 대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다.

2005년 발표된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문화관광부)는 무용인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 1) 예술직군: 안무 지도(예술 감독, 단장, 안무, 트레이너, 대본 작가, 연출), 무용수, 음악
- 2) 기술직군: 무대(음향, 조명, 제작, 기계 제어, 영상, 무대 진행), 분장, 의상, 기록(사진, 촬영)

- 3) 기획 및 경영관리 직군: 공연 지원(기획, 마케팅, 매니저, 사무), 공연장 운영(기획, 공연장 운영, 하우스 매니저), 코디네이터
- 4) 교육 직군: 정규 기관 교육, 비정규 기관 교육(학원, 사회교육, 개인 교습)
- 5) 행정직군: 공공 정책 입안과 집행
- 6) 기타 직군: 비평, 응용(움직임 분석 및 기록, 치유), 언론(기자, 편집자)

이들 직무는 무용 전공자들이 택할 만한 직무(직종)를 거의 망라했다고 생각된다. 이 직무 분석을 보면, 누구나 짐작하는 대로, 무용 전공자들의 취업 범위가 넓혀질 가능성이 재확인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앞으로 춤을 응용하는 직업이 갈수록 각광받게 될 것이다. 다만 본 직무 분석이 2000년대 중반에 이뤄진 것이므로 그 이후 사회를 추동한 새로운 추세들을 고려하면 몇 가지 직무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예컨대 SNS 활동이나 디지털의 영향력이 가시화되는 근래의 상황이 이 조사에 반영되기에는 물론 시기상조였다.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된 홈케어 프로그램 같은 유형의 직무도 본 직무 분석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이들 신종(新種) 직무는 말 그대로 신종이어서 앞으로 개척되고 공인받아야 할 직무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2005년에 정리되고 제시된 무용인의 직무 분류는, 당시에 그런 감이 없지 않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폭이 좁아서 오늘에 이를수록 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 단적으로 말해, 낡은 것이 되었다.

춤 전공자의 신종 직무는 더욱 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들 신종 직무는 안무나 공연 출연 같은 전래의 정통적 직무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과 대면(對面) 접촉하는 데서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령층을 위한 건강 차원 춤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일반인을 찾아가는 방문·순회·참여 직무가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고, 커뮤니티 댄스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신종 직무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조류들에 의해 그 토대를 계속 뿌리내리고 있다. 춤 신종 직무를 촉진할 우리 사회 조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줄고, '춤저널' 제25호 참조)

- 1) 노마디즘사회: 사유(思惟)와 정보 향유 / 정보 주도 사회
- 2) 시공편재: 수용 경로와 유통 방식의 팽창 / 춤의 성격 분화
- 3) 인터랙티브: 작품 및 현장과의 직접 소통 / 예술과 놀이의 결합
- 4) 여가사회: 춤 수용 기회(예술 차원 · 오락 차원) 증대
- 5) 수용 계층의 분화(일반인 / 노령사회 / 청소년 / 장애인 / 소수자): 춤의 분화
- 6) 춤과 몸 교육 및 춤과 몸 치유 활동 증가

그러므로 신종직무가 속속 출현할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신종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큰 전제 조건이 붙는다. 신종 직무가 다수의 종사자들을 필요로 할 것은 분명하고, 종사자가 없거나 부적격하다면 다양한 신종 직무는 한낱 꿈이나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신종 직무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 목전의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할 곳은 어디보다도 대학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종 직무에 종사할 사람을 대학이 직접 육성하는 것이 첫째 과제라면, 대학은 재학생들이 미래의 신종 직무를 스스로 꿈꾸고 개발할 안목을 함양하는 데서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길게는 지난 10년 넘게 일부 대학에서 마지 못한 학과 변경이 일어나고 심지어 폐과가 빚어진 바 있다. 시대 변동과 시대 요구 그리고 신종 직무에 착안하여 학과가 주체적으로 교과를 혁신하였더라면 그런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5. 신종 직군 상상하기, 그리고 새로운 체제 구축

이상의 진단 그리고 전망을 토대로 대학과 춤계가 준비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서 춤의 새로운 신종 직군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춤 콘텐츠 개발 전달 직군
- 2) 피트니스 프로그램 개발 전달 직군
- 3) 춤 지식 개발 전달 직군

이와 같은 신종 직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신종 직군은 춤으로 익힌 전공 능력을 춤 이외의 능력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예시된 세 가지 직군은 각기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능력, 건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능력, 지식화하는 능력을 전제로 해서, 이를 춤 전공 능력을 활용하는 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춤을 중심으로 각기 디지털, 건강, 지식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군들이다. 그러므로 춤을 춤만으로 인식하지 않고 춤을 포괄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들 신종 직군은 실현될 수 없다.

이상의 직군 이외에도 다양한 직군들이 더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가로 거론되는 직군들을 지레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직군이 현실성이 있을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직군이 시장성이 더 클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인기 직군이 되려면 앞서 직업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 항목으로 제시된 1) 사회적 기여도, 2) 직업지속성, 3) 자기 발전가능성, 4) 업무 환경 및 시간적 여유, 5) 직

무만족도에서 우월해야 한다. 춤계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 직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인력 양성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춤계가 신중 직무 또는 직군 개발의 지원과 대책에서 앞장서야 한다지만, 원칙론에 머물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작업에서 앞장선 단체나 기구도 없었고, 앞으로 얼마나 실현될지 불투명하다. 어떤 형태로든 00협회, △△협회라고 한다면 소속 회원들 그리고 그 협회가 속한 예술 부문의 권익과 경제 형편이 신장되도록 사업을 펼쳐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렇게 적극적인 협회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우리 현실 속에서 춤계의 지원과 대책을 강조하려니 사정이 딱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대학이 신중 직군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학과 출신자들이 그에 종사할 능력을 갖추도록 스스로 교과를 조정하고 강화해야 한다. 위에서 신중 직군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능력, 건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능력, 지식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1) 노마디즘사회, 2) 시공편재, 3) 인터랙티브, 4) 여가사회, 5) 춤 수용 계층의 분화, 6) 춤과 몸 교육 및 춤과 몸 치유 활동 증가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은 가능성 또는 요구 또한 날로 커가고 있다. 1) 춤이 다른 장르 혹은 다른 인간 활동과 접목되는 가능성 증대, 2) 일반인을 위한 일반인에 의한 춤 요청 증대, 3) 일반인 소집단을 위해 반복 사용 가능한 콘텐츠 요청 증대, 4) 익명의 다수에게 전달되는 지식 콘텐츠 요청 증대.

이상과 같은 큰 흐름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시안으로 제시되는 방향으로 전공 편제부터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본다.

- 1) 춤 실기 및 안무 전공
- 2) 춤 실용화 전공
- 3) 춤 디지털 콘텐츠 전공
- 4) 춤 인문 문화 전공

‘새 술은 새 부대에’란 말처럼, 신중 직무는 그에 걸맞은 틀부터 요구한다. 그간 기존 학과들에서 얼마간의 새 교과를 개설하여 새 흐름에 부응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미온적이며 자잘하고 지엽적인 노력은 그 실제 효력이 높지 않은 것 같고, 단적으로 현행 체제를 그대로 두고 알찬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면서도 과욕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은 무용 관련 학과의 전공 편제부터 재검토해서 시대 흐름에 맞춰 진취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설령 지금 당장 이렇게 개편하고 채비를 갖춘다 해도, 우수 인력을 조금이라도 배출하려면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도 춤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위에서 예시된 전공 편제에서 짐작되다시피, 이 전공 편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무엇보다도 학과 교수진부터 전공 영역에 맞춰 재구성해야 하고, 학과 신입생을 실기 능

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 대학에 따라서는 실기 능력을 일체 묻지 않고 일반 계열의 선발 방식을 적용하는 입학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대단하게 여길지 몰라도, 이 정도는 오늘날 파격도 아니다. 그만큼 사회는 급변하고 대학에서의 교육과제가 다변화하고 있어서 인적 구성부터 개편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튼 새 전공 제체를 구축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마다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을 테지만, 핵심 관건은 이를 실현해내려는 확고한 의지이다.

그간 대학의 무용 관련 학과들은 순수예술 무대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치중해왔다. 이러한 교육은 예술 인력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었다. 대체로 긍정적인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교육이 시대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부터 밝혀지고 있다. 대학의 폐과 사례들이 이를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가. 기존의 대학 무용 교육은 원천적으로 그 체제에서부터 시장에 적응하지 못해 왔었고, 급기야 춤계의 저조한 취업과 다수 현장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학의 무용 관련 학과의 기반마저 뚜렷이 흔들리고 있다. 명백해 보이는 이런 실패를 시인하지 않는 한편에서 춤계의 위기만 보이지 않게 지속 심화되고 있다. 거추장스러움을 무릅쓰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설령 지금 당장 이렇게 개편하고 채비를 갖춘다 해도, 우수 인력을 조금이라도 배출하려면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도 춤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인상이 짙다. 언젠가 춤계 공멸(共滅) 사태에 직면해서야 현행 체제를 바꾸려고 나설 것인가. 말기 암을 당한 그때 나서본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무튼 새 부대가 아니면 새 술도 빚을 수 없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이지러질 것인가, 아니면 거듭날 채비를 갖추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 기관소개 |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임원 소개 ■

이사장	박인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사)한국발레협회 회장
이사	김순정	성신여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인희	사)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박호빈	댄스시어터까두 예술감독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서양범	서울예술대학 방송영상과 교수
	안애순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예술감독
	장승현	공연기획자, 춘천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홍승엽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이경태	을지대학교 교수 /이경태정형외과의원 원장
감사	김성규	회계사/ 한미회계법인 대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의 상해재활 및 예방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전해주신 기부금은 무용수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기부 릴레이



귀하의 소중한 기부가

“춤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귀하의 기부금은 이런 목적에 의해 필요합니다.

1

- 무용수의 복지와 취업 등을 돕는 지원 활동을 위한 사업전개
- 무용수 실태조사, 대중에게 다가가는 무용 강좌 등의 사업 전개
- 무용활동의 활성화 도모

2

- 대중을 위한 무용보급 확대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지향
- 무대공연 중심의 무용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무용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귀하의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우수 무용수 양성, 무용수 교육, 공연, 연습 등 무용활동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됩니다.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엄격히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집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하고 감사의 보고를 통해 기부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통제합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주신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274-910005-14104

예금주: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25번지 12층 (120-833)

☎ 02) 720-6202 / Fax : 02) 720-6272

E-Mail : dcdc@dcdc.or.kr

Homepage : www.dcdc.or.kr

Twitter : @Dancers_Job

Facebook : www.facebook.com/dcdc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25번지 12층 TEL 02)720-6202, 6203, 6208 FAX 02)720-6272 E-mail dcdc@dcdccenter.or.kr
Twitter Dancers_Job Facebook www.facebook.com/dcdccenter www.dcdccenter.or.kr